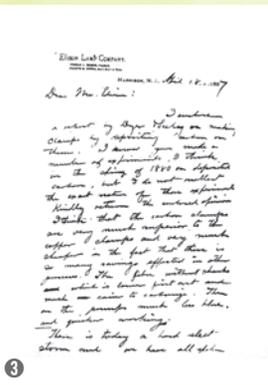


근대조명 - 건청궁(乾淸宮)과 전등소(電燈所)의 '건달불' ②



경복궁 안쪽 깊숙한 곳에 또 하나의 궁이 있다. 궁궐 속의 궁 건청궁이다. 왜 하필 건청궁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깃불이 켜지게 되었을까? 그곳에 전깃불이 켜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선 먼저 건청궁의 내력을 알아야 한다.

12살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오른 고종(高宗, 1863~1907년 재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년 동안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섭정(攝政)을 받아야 했다. 드디어 고종 10년 1873년, 대원군의 하야(下野)로 왕의 친정체제가 마련되던 그때 건청궁 건설이 시작되었다. 아무도 몰래 왕실의 사비를 들여가며 궁궐 안 북쪽 가장 깊숙한 자리에 몇 십 칸의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공사가 끝나기 전에 발각되어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경복궁 중건이 막 끝난 때에 새로운 전각을 짓는 역사(役事)는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건물이 거의 완성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결국 완공하였다. 이는 아버지 대원군으로부터의 정치적 자립에 대한 상징이며,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건청궁은 경복궁 후원 영역인 향원정(香遠亭)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사랑채, 안채, 별채 등과 손님맞이 공간으로 구성되어 궁궐 건축이 갖는 격식과 법식보다는 양반주택에 가까운 정도로 생활의 편리함이 돋보이는 공간이다. 왕의 거처인 장안당(長安堂)과 왕비의 거처인 곤녕함(坤寧閣), 그리고 왕의 서재인 관문각(觀文閣) 등이 중심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관문각은 1888년 러시아인 사바틴(A. S. Sabatine)이 관여하여 궁궐에 지은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탈바꿈한다. 그리고 창덕궁에서 집옥재(集玉齋)를 옮겨와 어진(御眞)을 봉안하고, 서재 겸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중국풍의 이 건물은 서구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여려는 고종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서적을 보관하는 곳이기도 했다. 장안당의 북행각은 공간 구실을 하던 곳이지만, 건청궁 전기 가설 후 발전 시설을 갖춘 전기실을 설치하였다.

건청궁의 전등소(電燈所)는 궁중 전기등 점등계획에 따라 조선정부가 1884년 9월 4일 미국 에디슨전등회사(Edison Electric Light Company)에 발전설비와 전등기기를 발주하여 1887년(고종 24년) 초에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소(發電所)를 말한다. 요즘 전기를 생산하는 공장인 발전소를 당시에는 전등소 또는 전기소(電氣所)라고 부른 것이다. 영어의 'Electric light plant'를 뜻하는 '전기등기관소(電氣燈機關所)'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것은 아마 초기의 발전이 보일러에서 발생시킨 증기로 증기엔진을 회전시킨 다음, 엔진의 플라이휠에 벨트를 걸어 다이내모의 전기자를 회전시켜

사진 ① 전기시등도(電氣始燈圖) ⇨ 경복궁 안 건청궁의 전등 점화 모습
 사진 ② 대한제국의 고종(高宗, 1852~1919), 이규현 해설,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 - 외침과 투쟁> 상 42쪽, 서문당, 1992
 사진 ③ 업튼(Francis R. Upton)이 에디슨에게 보낸 서신보고 원문 중 일부(1887. 4. 18)/국립에디슨유적지기념관 소장 ⇨ 경복궁 전등 공사를 담당할 총 지배인 업튼이 사장 에디슨에게 보낸 서신 보고이다. 당시 경복궁 전등 시설에 대한 개요를 담고 있으며, 경복궁에 가설되는 전등 시설이 아시아에서는 매우 우수한 설비라는 내용이 있다.
 사진 ④ 건청궁 관문각(觀文閣)에서 내려다 본 전등 모습(1900년대)/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화보> 24쪽, 1989 ⇨ 오른쪽 아래 장안당의 지붕 모습과 전면에 향원정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 ⑤ 건청궁 옥호루(玉壺樓) 앞에 설치된 전등(1900년대).



전기를 생산한 기전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전등을 전기등(電機燈)이라 부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¹⁾

건청궁에 설립된 전등소는 건청궁 일원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보일러 용수의 공급이 용이한 건청궁 앞의 어정(御井)과 향원지의 취향교(醉香橋) 사이에 세우고, 1887년 이른 봄 건청궁 내 왕의 처소인 장안당과 왕비의 처소인 곤녕합의 대청과 앞뜰, 그리고 궁의 담 밖과 향원정을 위시하여 향원지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점등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등 점화이다.

전등소로부터 전선을 달고, 전등을 건청궁 각 전각에 가설 점화하여 밤새도록 불을 밝히게 되면서 그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였다. 전등소의 발전연료인 석탄 비용과 고장 시 수리비, 외국인 전등기사의 보수 등이 막대하였고, 전기 설비의 잦은 고장과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전등이 제멋대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였다. 전등불이 건달불로 불리게 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는 일도 없이 건들거리는 그런 짓이나 사람을 보통 건달(乾達)이라고 부르는데, 건청궁의 전등을 건달의 속성에 비유하여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고종이 추진한 개화정책의 일단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다수의 백성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불안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에디슨전등회사에서 파견된 전등기사(전등교사) 맥케이(William W. McKay, 麥巨, 1864~1877)의 죽음은 건청궁의 전기공급 중단과 재정문제를 불러오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하였다. 맥케이는 에디슨전기등회사의 미국인 전등 기사로서 1886년 11월 입국하여 조선정부와 고빙(雇聘) 계약을 맺고 전기등설비 건설을 감독하고 직접 운영한 인물이다. 1887년 3월 8일 조선인 기수(旗手)의 권총오발 사건으로 사망함에 따라 조선정부는 부득이 전등소 운영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 6개월 간 휴업 끝에 새로운 영국인 전등교사를 초빙하여 재운전에 들어갔지만, 이 또한 여러 곡절을 겪으면서 원활한 전기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던 와중에도 1894년 창덕궁에 제2전등소가 준공되었으며, 그 규모는 종전의 건청궁 전등소의 약 3배에 달하는 크기였다. 그리하여 창덕궁에도 처음 전등이 점화되었는데 결국 재정문제로 중요한 몇 개 전각(殿閣)에 국한하게 되었다.

한편 건청궁은 1909년 일제에 의해 훼손되는 수난을 겪게 되었다. 한일합병 후 조선총독부의 시정오년(施政五年) 조선 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 개최와 1935년 박람회(博覽會) 개최를 위하여 건청궁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건물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총독부미술관을 세우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속내는 1895년 을미사변(乙未事變) 때 명성황후 시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기 위한 방편이었다. 을미사변 이후 건청궁은 조선으로서는 잊지 못할 치욕의 장소로, 그리고 일제로서는 떨쳐 내거나 감추고 싶은 장소로 부각되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로부터 약 100년 뒤 2006년 말 한국정부는 문화재청이 주도하여 3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건청궁을 새롭게 복원하였다. 손상되었던 자존심을 되찾는데 한 세기가 걸렸으며, 찬란했던 왕조의 마지막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그 속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발상지라는 전력사의 한 장(場)이 자리매김한다. 

- 사진 및 자료
 - 유홍준 외, <건청궁, 찬란했던 왕조의 마지막 기억>, (주)놀와, 2007
 - 이규현 해설,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 - 외침과 투쟁> 상, 서문당, 1992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화보>, 1989
 - 전기박물관 소장 자료
-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 ⑥ 창덕궁의 전등/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화보> 25쪽, 1989
 사진 ⑦ 건청궁 배치도, 유홍준 외, <건청궁, 찬란했던 왕조의 마지막 기억> 29쪽, (주)놀와, 2007
 사진 ⑧ 각감청터에서 내려다본 건청궁의 모습, 유홍준 외, <건청궁, 찬란했던 왕조의 마지막 기억> 26쪽, (주)놀와, 2007 → 왼쪽의 빈 공터는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관문각이 있던 자리이다.
 사진 ⑨ 향원정(香遠亭) 전경, 필자 촬영, 2011. 9. 17
 사진 ⑩ 건청궁 앞 한국의 전기발상지 표시석, 필자 촬영, 2011. 9. 17

1) 남문현, <電燈所는 우리 전기공학의 뿌리>, (사)대한전기학회 60주년 기념식 특강원고, 20쪽.